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함평에서 만난 길마가지나무

식물세밀화는 식물의 형태를 그림으로 기록한 기록물이다. 나는 식물의 시각 이미지를 기록하는 일을 하지만 실제 만나는 식물을 눈으로만 감각하진 않는다. 수피의 촉감을 느끼거나 꽃향기를 맡거나 열매의 맛을 느낄 때도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식물 이름만 떠올려도 그 식물의 촉감이 생생히 떠오르고, 어느 계절만 떠올려도 그 계절에 본 식물의 향기가 느껴질 때도 있다.

‘초봄’이란 계절을 떠올릴 때마다 내 고 끝에 전해지는 향기가 있다. 길마가지나무의 꽃향기. 작년 함평에서 맡은 그 향기를 나는 잊을 수 없다.

함평은 내게 추억이 깊은 고장이다. 함평에서 농사를 짓는 나의 오랜 독자 덕분에 함평에 두어 번 방문한 적이 있다. 그의 동료들이 운영하는 농장으로 오가던 길 고즈넉한 산골 풍경과 나를 초대한 사람들의 정다움이 일타미에 지친 내게 오랫동안 위안이 되었다. 나는 종종 함평에 들렀고 작년에도 강의가 있어 목포에 온 김에 시간을 내 함평자연생태공원에 갔다.

3월 초 아직 추위가 다 가지 않은 시기, 꽃을 볼 기대 없이 공원을 걷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향기가 났다. 향기에 이끌려 주변을 둘러보니 멀리 가지에 흰 꽃이 가득 매달려 있는 나무가 있었다. 길마가지나무였다.

길마가지나무는 내게 매우 익숙한 식물이다. 이들은 내가 자주 가는 광릉숲에도 많다. 다만 광릉숲에서는 3

월 말 즈음이 되어야 꽃이 피기 시작하지만 함평에선 그보다 한 달여 빨리 꽃을 볼 수 있다.

초봄의 길마가지나무에서는 상큼한 향이 난다. 정확히는 이들 꽃에서 나는 향이다. 여러 문헌에서는 이 향을 레몬향이라고 설명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레몬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상큼한 향이 조금 서린 플로라 향이랄까. 게다가 함평생태공원의 길마가지나무의 꽃에게서는 2~3미터 밖에서도 맡을 수 있을 만큼 짙은 향이 났다.

길마가지나무에게는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유독 많다. 나무에 잔가지가 많아 사람의 발길을 막아서 이름 붙었다거나, 이들의 짙은 꽃향이 지나는 사람을 멈추게 하기 때문이라거나, 황해도 방언이라고도 한다. 가장 유력한 설로는 이 나무의 씨방과 꽃의 모양, 나무의 줄기가 굵어 자라는 모습이 물건을 옮기기 위해 소와 말 등에 올린단 안장인 ‘길마’를 닮아 길마가지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길마가지나무와 비슷한 시기 개화하고 꽃의 형태가 비슷한 나무도 있다. 괴불나무 중 유독 일찍 꽃을 피우는 울괴불나무. 이들도 가지에 잎이 돋기 전 꽃부터 피워 길마가지나무와 헛갈리기 쉬우나 울괴불나무에게서는 길마가지나무만큼 짙은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길마가지나무 꽃의 꽃밥이 노란색인 반면 울괴불 나무의 꽃밥은 분홍색이다.

함평에 다녀온 지 3주가 지났을 때 광릉의 길마가지

나무에도 꽃이 피었다. 이들 꽃색은 연분홍, 연노랑이 섞인 흰색이며 5개의 수술이 있고, 1개의 암술대에는 털이 없다. 그리고 함평에서 맡았던 향기가 났다. 그러나 그 향만큼 짙진 않았다.

사실 길마가지나무가 숲에서 가장 빛나는 계절은 따로 있다.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는 계절이다. 열매는 5~6월에 성숙하는데 장과로서 2개의 열매 아래 절반이 합생하여 하트 형태가 된다. 가지마다 열매가 익는 속도가 달라서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하트 모양 열매가 거꾸로 달려 있는 모습이 참 이색적이다. 마치 젤리 같은 열매를 손으로 누르면 툭 터지며 안에 있는 투명한 액체와 씨앗이 방출된다. 함평생태공원의 길마가지 나무에 핀 꽃을 보며 다가오는 계절 빨간 하트 열매가 가득 맺을 모습을 상상했다.

어제 마침 함평에서 연락이 왔다. 그곳의 길마가지 나무는 꽃이 이미 다 저서 보이지 않고 푸릇한 잎이 다 자랐다고 했다. 답신으로 나는 광릉의 길마가지나무 꽃이 만개한 사진을 보냈다.

가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 식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화 ‘동감’이 떠오를 때가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식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지금 내 눈 앞의 길마가지나무는 그가 과거에 본 것이고 지금 그의 눈 앞 길마가지나무는 내가 미래에 마주할 것이란 점에서 말이다.

〈식물 세밀화가〉

의료칼럼



김동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원장

대장내시경은 대장과 직장을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 대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장내시경을 받아야 할 증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인 복통을 느끼는 경우 대장 문제를 의심할 수 있다. 대장암이나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배변 후에도 불편함이나 통증이 지속될 경우 대장이나 직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변이 매우 딱딱하거나 배변 횟수가 매우 적은 경우 대장의 운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변비가 지속되거나 갑작스럽게 변비가 생기면 의심할 수 있다.

설사가 계속되는 경우는 대장염, 대장감염, 또는 궤양성 장질환의 증상일 수 있다. 설사에 체중 감소와 피로감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될 경우엔 대장에 심각한 문

대장내시경을 받아야 할 증상들

제가 있을 수 있다.

다음은 변의 색 변화에도 신경 써야 한다.

검은색 변은 출혈이 위장에서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지만 대장에서 출혈이 있을 때도 검은 변이 나올 수 있다. 이는 혈액이 위장에서 위산과 반응하여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붉은색 변은 대장이나 직장에서 출혈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출혈이 변에 섞여 나오는 경우 대장암, 치질, 용종(혹은 폴립) 등의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변에서 혈액이 나오는 증상은 매우 중요한 신호이다. 혈변은 대장이나 직장에서 출혈이 있을 때 나타나며 이는 대장염, 치질, 용종, 대장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혈액이 변기에 비치거나 변에 섞여 나오는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면 대장암이나 다른 대장 질환 가능성이 있다. 대장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이후 체중 감소, 피로감,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갑자기 배변 횟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등 배변 습관에 큰 변화가 생긴 경우에도 대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변이 가늘어지거나 형태 변화가 있는 것도 중요한 징후이다.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일어나는 것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IBS)이나 염증성 장질환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다.

가족 중 대장암이나 대장 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면 대장내시경을 통해 조기 발견을 위해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장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대장암의 발병률은 50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한다. 대장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성인들은 예방적인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50세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대장내시경을 통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다.

이밖에도 배변 중 출혈이나 점액이 섞여 나오면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의 염증성 장질환을 시사할 수 있으며 점액이 배변 시 나오는 것도 대장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미열과 함께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고려해 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대장내시경은 대장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이다. 위에 언급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조기에 대장내시경을 받는 것이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대장 용종 등의 질환을 예방하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기고



송춘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인구는 264만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5.1%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비장애인 실업률은 3.2%인데 비해 장애인 실업률은 5.1%로, 비장애인의 두 배에 달한다. 통계수치에서 보듯이 오늘 현재까지도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책무 이행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는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부담금(의무 고용 인원 비율에 따라 적게는 월 125만 8000원에서 많게는 209만 6270원)을 납부해야 한다. 매년 장애인의 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납부하는 부담금이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8950억여 원에 달한다.

광주시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691개사 중 169개사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미이행하여 115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는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광주시 관내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과 대학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못해 2024년에만 부담금으로 A대학교 4.5억여 원, B기업 6억여 원, C기업 10억여 원 등을 납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필자가 근무하는 공단의 컨설팅을 받아 장애인 고용 의무를 미이행하는 기업들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많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제도는 모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환경을 제공하여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의무고용 사업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의 이미지 상승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장애인 고용 모델이다.

대표적인 기업과 대학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화학,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제과, 오뚜기, 풀무원, 충남대, 이화여대 등이 각각 자회사를 설립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구축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자회사들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 베이커리, 사무행정 보조, 세탁, 카페 운영, 제품 포장, 세차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024년말 기준 170개의 자회사가 설립되어 7800여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대학들이 장애인 고용 의지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장애인 고용 통합 서비스 전문기관인 공단에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과 대학들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장애인 고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자회사는 장애인들이 일하는 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들의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더욱 강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오는 4월 20일은 1981년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이 제정된 지 어느덧 45주년이 되는 날이다. 매년 이 날은 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는지를 돌아보는 중요한 날이다.

끝으로 아직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과 대학은 자회사 설립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 드린다.

社說

광주 기아차 방문 한덕수 대행 ‘대권 행보’ 하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행보가 정치권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6·3 대선 정국을 보면서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방문이 논란을 부채질 했다. 한 권한대행은 15일 광주 서구 상촌동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방문하면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미칠 파장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다수는 대권 행보로 보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35%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만큼 관세가 부과되면 타격이 클 것이라며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등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받을 관세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광주까지 내려오지 않고 울산이나 화성 등 다른

지역 자동차 공장을 방문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굳이 광주를 방문한 것은 전주 출신으로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남 후보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의심스럽다.

한 대행은 당초 ‘대선의 ㄴ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권 도전을 묻는 질문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후 정치권에 선 그의 대권 도전 가능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탄핵소추 됐다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직후 느닷없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 월권행위도 결국 대선을 염두에 둔 행동이란 의심을 살만 하다.

한 대행은 며칠 전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소명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소임인지 대권 도전 의지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매번 중의적 표현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광주 방문을 지켜본 시민단체는 “내란 대행 한덕수가 대통령 놀음을 위해 광주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직격했다. 가슴에 새길 말이다.

땅꺼짐 잦은 도시철도 2호선 현장 안전한가

최근 전국에서 땅꺼짐 사고로 사망자가 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싱크홀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름 20m, 깊이 18m의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고 이날 들어서는 지난 11일 광명 신안산선 도로에서 땅꺼짐 사고로 한물된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

땅꺼짐 사고는 광주도 예외가 아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 주변을 중심으로 최근 잇따라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 15일에는 동구 지산사거리 주유소 앞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이곳은 서석동 일대 상가 주민들이 이전부터 지반 침하 우려를 제기한 조선태 사거리 앞 상가와 80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하철 공사로 건물 침하와 균열로 인근 음식점과 학원 등이 누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보상과 안전 관리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109건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도시철도 2호선 주변에서만 4건의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싱크홀 발생의 주 원인은 지하철 공사와 상수도관 누수 등이 꼽힌다. 광주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이고 앞으로 도로 상당 기간 계속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지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공사장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병행해야 한다. 인명 피해가 나더라도 현행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재해로 규정하는 법이 없어 사고에 대한 규정과 보상 여부,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 재난안전법에 땅꺼짐 사고가 사회적 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은 만큼 차체에 법체계를 손 볼 필요도 있다.

無等鼓

오래 전 잡지를 함께 읽는 모임을 취제한 적이 있다. 일반 도서가 아닌, 잡지를 읽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들이 함께 읽고 생태주의, 탈핵, 대안적 삶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눈 책은 ‘녹색평론’이었다. 지난 2021년 11월 ‘녹색평론’(제 181호)을 받아든 구독자들은 슬픈 소식을 접했다.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해 1년간 휴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다. 고(故) 김종철 발행인의 뒤를 이어 잡지를 만들어온 은 딸 김정현 발행인의 결단이었다.

많은 독자들은 구독료를 환불받지 않고 잡지가 다시 발간되길 기다

‘사상계’ 복간

권이 발행인을 맡고 최재천 교수 및 20~30대 청년 세대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장 발행인은 “앞

으로 권력과 부정적 힘에 대항해 굽히지 않고 바른 소리를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녹색평론’의 2025년 봄 통권호의 주제는 ‘시민이 주도하는 개헌 운동’이다. ‘사상계’ 복간호에는 ‘응답하라 2025!’를 주제로 12·3 비상계엄, 문명 전환 등 다양한 일이 실렸다. 탄핵정국을 지나오며 방향성을 상실하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어온 이들에게 시대의 상징적 존재 같은 두 권의 잡지는 더 없이 반갑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